

■ 권중달 교수의 역사칼럼(81)

천 자 자 괴

天子自壞

천자가 스스로 무너트렸다

권 중 달 (중앙대 역사학과 명예교수, 삼화고전연구소 소장)



요즈음은 자고 일어나면 전에 없었던 사건이 터진다. 그 가운데 하나가 국회에서 공직자를 탄핵하는 것이다. 벌써 몇 달째 민주당이 중심이 되어 공직자 30여 명을 탄핵 발의했는데, 또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탄핵하자는 말이 나왔다.

우리 헌정사 70년을 돌아보거나, 다른 나라의 정치사를 보아도 이런 경우는 아주 흔치 않다. 행정부나 사법부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군사적인 힘을 빌려 쿠데타를 하는 경우는 흔히 볼 수 있었지만, 이렇게 입법부의 다수 의석을 가진 세력이 행정부와 사법부의 공직자를 탄핵하여 일을 못하게 하여 업무를 마비시킨 경우는 처음인 것 같다. 쿠데타는 헌법 밖에서 무력으로 정부를 무력화시키는 것이어서 불법이지만, 이런 경우는 현행 법 안에서 정부를 무력화시키려는 것이므로 목표는 같지만 방법은 다르다. 교묘한 방법의 정출이라 할까?

이를 보면서, 과거 교활한 방법으로 왕조를 찬탈하였던 상황이 문득 떠올랐다. 우리가 잘 아는 고려 태조 왕건(王建)이 신라 경순왕으로부터 선양(禪讓)을 받았고, 조선의 이성계가 고려 공양왕(恭讓王)에게 선양을 받았던 모습과 오버랩 되어서이다. 선양이란 원래 요(堯)임금이 자기 아들에게 왕위를 주지 않고 당시 현자(賢者)인 순(舜)에게 양위(讓位)한 것을 말한다. 그래서 개인보다 공익을 앞세운 것이라 하여 칭송받는 제도이다.

그런데 후에는 무력을 가진 자가 전 왕조를 무너트리고 자기 왕조를 세우는 찬탈을 하면서 현재의 왕에게 자기에게 선양하도록 하여 형식만 선양의 절차를 밟았다. 본래 훌륭한 후계자를 골라서 정권을 넘긴다는 선양이라는 제도가 무력을 가진 교활한 세력에게 도용(盜用)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왕건이 경순왕을 세우고 다시 그의 선양을 받았고 이성계는 공민왕을 세웠다가 그의 선양을 받았으니 형식상으로는 찬탈이 아니고 선양이지만 그것을 누구도 요순의 선양처럼 보지 않는다. 칭송받는 제도가 후대의 교활한 세력에게 이용된 것이다.

사실 이렇게 힘을 가진 사람이 합법(合法)을 빙자하여 기존 질서를 무너트린 일은 고려, 조선왕조 이전부터 있었다. 지금부터 대략 2,500년 전에 이러한 일이 벌어진 내용이 자치통감의 첫줄에 실려 있는데 '주(周) 위열왕(威烈王) 23년(기원전 403년)에 처음으로 위열왕이 진(晉)의 대부(大夫)인 위사(魏斯), 조적(趙籍), 한건(韓虔)을 제후로 삼았다'라고 하였다.

이게 무슨 말일까? 당시에 주(周) 천자 위열왕이 그 제후국인 진(晉) 나라 대부 위사와 조적과 한건을 제후로 책봉하여 임명하였다

는 뜻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과거에 패권(霸權)을 쥐고 주 천자를 모시면서 천하를 지휘한 일이 있었던 제후국 진(晉)에서 그 제후 밑에 있는 대부(大夫) 세 사람이 자기 위에 있는 제후를 강그리 무시하고 무력으로 진(晉)을 셋으로 갈라 가지고, 그것도 모자라서 제후로 책봉할 권한을 가진 천자 위열왕에게 자기들을 제후로 삼아 달라고 요구하였고 위열왕은 이를 따른 것이다.

그때까지 전통적인 관념에서 본다면 세 대부가 자기들 위에 있는 진(晉) 제후를 완전히 무시하고 땅을 나누어 가졌으니 이는 분명히 하극상이고, 천자는 그런 사람을 처벌하여 질서를 잡아야 했다. 그래야 주(周)나라를 세우면서 만든 봉건제도의 질서가 유지되는 것이라고 본다. 이 세 대부가 하극상을 저지르는 바람에 천자의 지위는 물론 제후의 지위도 무너지게 되고 봉건질서는 무너졌다고 것이다. 그런데 자치통감을 쓴 역사가 사마광(司馬光)은 오히려 전통적인 봉건질서를 파괴시킨 것은 세 대부가 아니라 천자 자신이라고 하였다. 왜일까?

이를 어떻게 볼 것인가? 보통 사람들 대부분은 하극상(下剋上)을 벌인 위사, 조적, 한건 같은 대부가 봉건질서를 어기고 제후의 땅을 삼분(三分)하였으니 역사의 죄인(罪人)이라고 본다. 이 세 대부가 하극상을 저지르는 바람에 천자의 지위는 물론 제후의 지위도 무너지게 되고 봉건질서는 무너졌다고 것이다. 그런데 자치통감을 쓴 역사가 사마광(司馬光)은 오히려 전통적인 봉건질서를 파괴시킨 것은 세 대부가 아니라 천자 자신이라고 하였다. 왜일까?

사실 이때 천자는 아무런 힘이 없었고, 제후의 땅을 셋으로 갈라먹은 힘을 가진 대부가 제후로 시켜달라는데 아니시킬 방법이 없었다는 것이 일반적 시각이지만 그것은 잘못이라는 것이다. 사마광은 '위열왕이 끝까지 세 대부를 하극상한 사람으로 보고 제후로 임명할 수 없다고 거절하면서 제후로 책봉하지 않았다면 이 세 대부가 어떻게 했을 것인가?'라고 묻고 있다.

그렇게 되면 세 대부가 스스로 제후가 될 수 있었을까? 아니면 천자를 죽였을까? 어느 것도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들 대부가 자기 스스로 제후가 되려고 했다면 천자에게 제후를 시켜달라고 요구할 것 없이 그냥 자립(自立)하면 되었을 것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천자에게 요구하였다는 것은 그 래도 눈이 무서웠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천자를 위협하여 합법적인 제후책봉을 받으려고 하였는데, 왜 위열왕은 그것을 모르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 주었느냐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열왕대에 주왕조의 발판

인 봉건제도를 무너트린 것은 세 대부의 하극상이 아니라 위열왕 스스로 무너트린 것이라는 말이다.

이렇게 본다면 앞서 예로 든 신라의 경순왕이나 공양왕도 왕건이나 이성계가 교활하게 선양 형식을 갖추려 한 것을 도와준 셈이니 그러한 점에서 왕건이나 이성계의 무도함을 나무라기보다는 끝까지 반대하지 못한 경순왕과 공양왕에게 화살을 돌려야 옳다.

각설하고 현재 우리나라 정치에서 벌어지는 전에 없던 일들, 예컨대 민주당의 끝없는 탄핵공세를 나무라는 사람이 많지만, 그러나 공직자를 탄핵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국회의원을 뽑은 사람은 국민이다. 그들은 합법적으로 뽑혔고, 무리하긴 하지만 뽑힌 이상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마치 진(晉)의 세 대부인 위사, 조적, 한건이 자기들의 부강(富強)을 극대화하고, 권력과 지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욕망을 나무랄 수 없는 것처럼 민주당의 줄 탄핵을 통한 정부와 사법부의 공격은 정권을 얻고자하는 욕망의 발로이니 나무랄 수 없는 것이다. 도덕적으로는 교활한 방법을 사용하였다고 비난할 수 있어도 합법적 방법을 동원하였으니 나무랄 수 없다. 그러므로 이런 행태가 비난받아야 한다면 오히려 그러한 사람을 뽑은 투표자가 받아야 한다.

오늘날의 과거 천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투표자인데 이들을 협박하거나 감언이설로 꾀는 세 대부 같은 세력은 없는가? 어느 시대에도 결모습을 달리고 변형된 모습으로 활동하는 세 대부 같은 사람은 있는데, 오늘날에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 있을까? 내가 보건대 첫째는 앞뒤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정치인일 것이고, 다음으로는 사실 관계보다 자 극적인 말로 돈 벌이는 하는 정치 유투버, 마지막으로 길으로 정론(正論)이라는 간판을 내세우면서 끊임없이 여론을 왜곡하며 세력을 확장하려는 언론 매체이다.

사실 안정된 시대라고 하여도 이런 세력이 있고, 그럼에도 혼란하지 않았던 것은 결정권을 쥔 사람이 현명하여 이들의 교활함에 넘어지지 않았을 뿐이다. 그런데 지금 합법을 가장하여 개인 잇속을 차리려고 하는데 정작 그 속내를 간파하지 못하고 이들에게 넘어가거나 그 영향을 받고 투표했다면 세 대부의 협박과 감언이설을 명쾌하게 가려 내지 못하고 그들을 제후로 책봉한 위열왕과 다를 것이 없다.

사마광의 말로 바꾸어 말한다면 지금의 이 어지러움과 앞으로 있을 혼란을 꿰뚫어 보지 못하고 그 요구대로 투표한 어리석고 용기 없는 위열왕 같은 국민 자신이다.

고사성어

권태정 전 뉴욕중앙일보 사장



금준미주(金樽美酒)

쇠금, 술동이준, 이름다울 미, 술 주.

금항아리에 단기 향기로운 술이라는 뜻인데 춘향전에서 암행어사 이몽룡이 탐관오리 변학도를 질타하는 대목으로 나오는 구절.

금준미주(金樽美酒)는 천인혈(千人血)이요 금항아리에 담긴 향기로운 술은 천 사람의 피요

옥반가효(玉盤佳肴)는 만성고(萬姓膏)라. 옥쟁반에 담긴 좋은 안주는 만백성의 피고름이라

촉루락시(觸淚落時)에 민루락(民淚落)이요 촛불의 눈물 떨어지듯 백성 눈물 떨어지고

가성고처(歌聲高處)에 원성고(怨聲高)라. 노랫소리 높은 곳에 백성들 원망소리 드높구나

기고만장(氣高萬丈)

기운 기. 높을 고. 일만 만. 길이 장.

기운이 만장이나 뻘치었다는 뜻으로 펄펄 뿜 만큼 크게 성이 남. 또는 일이 뜻대로 되어 나가 썩썩한 기운이

대단하게 뻘쮸. 같은 뜻의 성어로 기염만장(氣焰萬丈), 의기양양(意氣揚揚), 기세등등(氣勢騰騰) 등이 있다.

기상천외(奇想天外)

기이할 기. 생각 상. 하늘 천. 바깥 외.

보통사람이 짐작할 수 없을 정도로 엉뚱하고 기발한 것. 착상이나 생각 따위가 쉽게 짐작할 수 없을 정도로 기발하고 엉뚱한.

기세등등(氣勢騰騰)

기운 기. 세력 세. 오를 등.

기세가 매우 높고 힘찬 모양. 남을 압도할만한 힘이 잔뜩 올라 있음.

유의어

기고만장(氣高萬丈): 기운이 만길 높이만큼 뻘었다는 뜻으로 자랑스럽게 여겨 기세가 등등한 모습을 나타내는 말

의기양양(意氣揚揚): 흥이 나서 기세가 당당하거나 자랑스러워서 뽐내는 모양을 뜻하는 말

기암괴석(奇巖怪石)

기이할 기. 바위 암. 기이할 괴. 돌 석.

기이한 바위. 괴상하게 생긴 돌. 모양이 독특하고 이상한 바위와 돌.

밀양종친회 2025년도 정기총회 개최

지난 5월 15일 2025년도 제72차 안동권씨 밀양종친회를 경주 운곡서원에서 개최하였다. 권혁웅 경주 종친회장으로부터 운곡서원에 대한 연혁과 서원에서 배향하고 있는 시조 태사공과 19세 죽림공 관선대, 23세 귀봉공 권덕린에 대한 선조 삼현(三賢)의 광휘(光輝)한 치적, 고결(高潔)한 절의의 참 뜻을 되새기는 의미있는 총회를 개최하였다. 정기총회 후 경주 감포로 이동하여 송대말등대 빛 체험관, 문무대 왕릉, 주상절리를 관광하고 밀양으로 귀향하였다.

권영근 종친회장은 내년에도 시대 흐름에 맞는 총회 개최로 회원 확충을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다짐하였다.

권기영 밀양종친회 총무



가시에 걸린비

만동 / 권영록

행자나 일 사이로 하늘을 본다.
마침내 하늘을 꿰었다
조그만 가시하나

떨어지는 방울에 하늘을 담아
채곡이 걸어두고
이제는 빗방울 주름속에
나를 가둔다.

설익은 발톱으로
하늘을 할퀴었다
비가 내린다.

〈미소문학 2015년 봄호 등단작〉

2025年 5月 宗보대금 납부자 명단

납부기간: 4.30. ~ 5. 27. 총 납부자 28명 총 840,000원

(이름순)

(단위: 원)

권경민(인천) 30,000	권상호(안동 와룡면) 30,000	권옥경(원주) 30,000	권혁기(서울양천) 30,000
권광규(창녕) 30,000	권승욱(용인) 30,000	권진우(봉화) 30,000	권혁도(서울노원) 30,000
권규원(예천) 30,000	권영국(옥천) 30,000	권태연(제천) 30,000	권혁도(수원) 30,000
권기백(경주) 30,000	권영두(광주) 30,000	권태용(서울중구) 30,000	권화섭(대구) 30,000
권덕근(서울동대문) 30,000	권영목(수원) 30,000	권태원(예천) 30,000	권구현(합천) 30,000
권부중(고흥) 30,000	권영역(안동) 30,000	권태현(창원) 30,000	권재안(광주) 30,000
권상안(창녕) 30,000	권우달(양산) 30,000	권택승(안동) 30,000	권춘택(영주) 30,000

* 연간 종보 구독대금은 3만원입니다.

안동권씨 종보 구독 및 협찬 안내

〈안동권씨 종보〉는 1974년 12월 1일 창간된 이후 50여 년 동안 안동권문을 대표하는 공식 기관지로서 안동권씨 가문의 전통과 문화를 비롯하여 선조들의 인문정신과 학문적 유산, 후학들의 지혜를 모아 매월 1일자로 발행되고 있으며, 국립중앙도서관에 영구 보관되고 있습니다.

종보 협찬금은 1년에 3만 원이며, 종보 발전을 위해 기금이나 광고 등으로 협찬하실 분은 대총회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족친 여러분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대총회 사무처 : 02-2695-2483
▶이메일 주소 : andongkwonmun@daum.net
▶예금계좌 : 국민은행 계좌(033237-04-006772)

안동권씨 대총회